봉축사진전 풍성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전에 나오는 이병윤作 '노승'.



◇선암스님의 연꽃전이 5월13~19일 동덕갤러리에서 열린다.

'98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사진전이 그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원전, '심상'의 '풍탁의 울림'전, 선암스님과 김진숙씨의 연꽃전,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입상작展 등이 그것.

17~21일 부천시 홍보전시관, 30일~5월 3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회원전을 갖는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윤)의 두번째 회원전에서는 회원들 작품 40여점, 관조 동욱 영담 스님, 안장헌씨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가톨릭사진가동호회에서 찬조한 3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석왕사 사진동호회 '심상'이 24~29일 부천시 홍보전시관, 5월 2~3일 부천 석왕사 교육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는 '풍탁의 울림'전은 법당이나 불탑의 처마 또는 옥개부분에 매달려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장엄구인 풍탁(풍경)을 주제로 해 눈길을 끄는 전시회.

불교사진연합회원전

석왕사 사진동호회전

선암스님 연꽃사진전

사진전람회 입상작전

등계청에 근무하는 불자 김진숙씨(법명 광덕월)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인사동 사진이있는마당에서 '광덕월의 연꽃사진축제'를 갖는다. 이번 사진전에는 10여년동안 연꽃만을 찍은 작가의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본 연꽃의 다양한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능원사 선암스님도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안국동 동덕갤러리에서 연꽃전을 갖는다. 27년동안 영산재와 연꽃을 주로 포커스에 담아온 스님의 5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시연꽃 등 희귀 연꽃들과 연꽃의 사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선암스님은 "나의 사진작업은 단순히 연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수행이며 구도행각으로, 렌즈를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연꽃의 아름다운 자태뿐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진리와 순수로 이번 사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를 자기 것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한편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동숭동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사진전에는 '참선' '타종' '환희' '기원' '도반' '윤회' '열반의 길' 등 불교소재의 사진작품을 다수 만날 수 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5〉

푸른 산은 천고의 마음

山截先朝旭 (산절선조욱) 산이 잘려 아침 햇살 먼저 받고
樓低易夕陰 (누저이석음) 누대 낮아 저녁 그늘 쉽게 든다
無言臨水久 (무언림수구) 말 없이 물 굽어보기 오래다가
覓句坐花深 (멱구좌화심) 시구 찾으려 꽃숲에 깊이 앉다
芳草皆新面 (방초개신면) 꽃다운 풀이야 낯낯이 새롭지만
靑山獨古心 (청산독고심) 푸른 산만은 유독 천고의 마음일세
更謀良夜醉 (갱모량야취) 다시 좋은 밤을 취할 생각인데
晴月上東林 (청월상동림) 맑게 개인 달이 동쪽 숲에 오른다.

징월대사(澄月大師, 1751~1823)의 시이다. 대사는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어버이 섬김이 지극하였고, 자라면서 공부하기에 근면했다. 금성산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서암(瑞巖) 화상의 설법을 듣고는 하던 공부를 치우고 "사람이 사람으로 된 것은 심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불가에서 말하는 '마음을 살피고 본성을 본다'는 것이 돈오의 지름길이 아니냐"고 하고는 곧 가희총공(嘉禧聰公)에게서 체발하고, 관월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대사는 본성이 단아장중하여 사람들에게 항시 칭송되었고, 더욱이 시로 이름이 알려져 영남지방의 명승으로 추앙되었다 한다.

이 시는 '춘일우음(春日偶吟)'이라는 시로, 대사의 간결한 시재가 돋보인다. 우연히 읊는다 함이 바로 꾸밈이 없는 평소의 행위나 사색이다. 대사의 진솔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흐르는 물은 말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대자연의 언어요, 계절따라 언제나 있는 것이 꽃과 나무이지만,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시다. 여기에서 시구를 찾는다 하였지만 오히려 진리의 탐색이고 수선의 한 방편이다. 봄에 돋는 방초야 해마다 새로운 모습이지만, 그도 옛모습의 오늘이지 옛모습과 다른 오늘의 모습이 아니며, 산은 항시 옛 산이지만 그도 오늘을 저버린 옛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변함의 실체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선리의 현현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에밀레종 다시 울린다"

경주博 초파일타종 검토

한번 치면 그 울림이 2분여동안 지속돼 혼탁한 영혼을 맑게 해 준다는 신비의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국보29호). 5년여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신라 천년의 소리를 빠르면 5월3일 부처님오신날부터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6일 "그동안 에밀레종의 훼손여부를 종합정밀검사한 결과 타종을 중단할 만한 큰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종은 특성상 타종을 계속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타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관장은 "겨울철에는 금속성분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제야의 타종은 피하고 부처님오신날이나 다른 경축일 등 1년에 몇차례씩 타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밀레종은 1915년 경주박물관 소관이 된 이래 75년까지 60년동안 11만번이상 수시로 타종을 해 오다가 75년 박물관이 현재의 신관으로 이전하면서 제야의 종으로만 쳐왔다. 그러나 종의 훼손방지와 과학적 진단을 위해 92년 12월31일을 끝으로 타종이 중단됐다.

인각사 복원 '신중론'

김상영교수 "사역확인 발굴조사 선행돼야"

군위 인각사 복원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결과 미륵당지에서 통일신라의 귀면와 등 창건시기를 밝혀줄 유구가 다량 발굴됐다(본지 169호 1면 참조). 이에따라 올해 예산이 책정된 일주문 및 담장 신축공사를 늦추더라도 사역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인각사 발굴현장 설명회에서 중앙승가대 발굴조사단 김상영 교수는 "인각사의 사역은 통일신라 창건이래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복원을 서두르기 보다는 확대발굴조사를 통해 복원시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발굴조사에서 주목되는 곳은 미륵당지. 서편 1칸에서만 8세기 중엽의 귀면와 2점을 비롯 토기, 막새 등 통일신라시대의 창건시기를 밝혀줄 유구가 거의 완형(完形)에 가깝게 출토돼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현재 인각사의 사역은 대략 동서 1백80m, 남북 1백50m. 그러나 일제시대때 한반도의 맥을 끊을 속셈으로 인각사 마당에 도로를 개설한 탓에 올 3억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담장설치와 일주문 건립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로 건너편에도 유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도로를 끼고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발굴조사단 책임조사원 최태선교수(중앙승가대)는 "향후 인각사 위쪽에 군위댐이 건설될 경우 하천정비와 함께 도로도 재정비될 것"이라며 "우선 도로 건너편의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호 경기도박물관장도 "지금 상태로는 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찰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인각사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변의 발굴현장. 인각사 사역확인을 위해서는 도로 건너편까지 발굴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기석 기자

나주 복암리고분 귀자명 토기 출토

백제불교 연구자료

나주 복암리 3호분에서 '귀' 자가 새겨진 개배(蓋杯·뚜껑접시) 1쌍이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남대 박물관은 개배를 비롯해 규두대도(圭頭大刀·손잡이 머리가 각이 진 철제칼), 은으로 만든 관모 장식물 2점, 불에 탄 인골이 담긴 토제(土製)원통관 등 6세기말~7세기초의 유물 20여점을 공개했다.

출토유물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귀자명 뚜껑접시. 뚜껑의 윗면과 접시의 바닥면에 각각 주칠(朱漆)로 선명하게 거꾸로 씌여진 '귀' 자가 있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예로 백제시대 불교관계를 설명해주는 희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밖에 불에 탄 인골이 담긴 원통관은 당시 이 지역에서 불교의 화장의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유물들은 백제와 토착세력(마한)간의 관계규명 속에서 불교 수용 내지 역할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복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귀'자명 개배.



◇선암사 팔상전에 봉안돼 있는 화엄탱.

선암사 불화의 신비

중앙박물관 '미술사학지' 2집에 게재

7불탱, 53불탱, 33조사탱, 화엄탱 등 흔치않은 주제의 선암사 불화들이 최초로 집대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고미술연구소가 10일 펴낸 〈미술사학지〉2집 '선암사의 불교회화(김승희 학예연구사)는 1969년부터 9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한 선암사의 불화 96점을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불조전·대웅전·팔상전·진영각 등 전각별로 분류, 고찰하고 있는 이 논문에 따르면 선암사에서 가장 오래된 불화는 1702년에 제작된 불조전의 '칠불탱과 53불탱'. 그러나 아쉽게도 이 두 탱화는 지난해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하다. 팔상전에 봉안된 33조사탱(1753년)과 화엄탱(1780년)은 각각 선종입장의 사자상승의 계보와 〈화엄경〉의 7처9회를 도상화해 선사상과 화엄사상의 융합을 보여준다. 또 진영각에 모셔져 있는 고승진영은 선암사가 여러 문중이 혼재돼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승희 학예연구사는 "선암사의 고승진영은 금어를 비롯 화주, 증명선사 등 불화불사에 참여한 스님들의 법명을 적고 있는 불화의 화기(畵記)와 더불어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승려들의 계보와 그들의 학문 및 신앙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